

‘광주가 평화다’

5·18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광주정신을 중심으로 -

이윤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머리말

1. 광주항쟁과 송백회
2. 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의 활동
3. 광주항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오월투쟁
4.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오월여성들의 평화문화활동:
‘오월여성 평화를 품다’
5. 광주항쟁의 여성에서 찾은 광주정신:
한민족 생명평화의 원형(Arche)

맺는말

후기

부록

머리말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적 변혁기에 각 나라의 여성들은 인권과 생명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사회적 위기에 맞서 선도적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며 끈기 있게 싸워왔다. 국가권력의 폭력과 살상, 억압의 험준한 고해 속에서 생명과 자유, 평화를 위한 줄기찬 싸움이 팔레스타인, 아르헨티나, 라이베리아, 볼리비아, 아일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등 세계여성들의 삶 속에서 강고하게 지켜져 왔다.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위대한 투쟁이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분수령이 된 5·18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은 신군부가 저지른 학살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저항으로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였다. 신군부의 폭력은 제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민족분단 그리고 한국전쟁과 이에 이어진 전 세계 지정학적 냉전 군사패권체제에서 형성된 신군부 정치군인들의 정권찬탈을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맞서 여성들은 항쟁 조직들을 연결하는 구심에서 상황을 전파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신군부가 광주 외곽을 완전히 고립시킨 상황에서 피와 밥을 나누는 자치공동체를 형성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5·18광주항쟁의 한 중심에는 여성조직‘송백회’가 있었다. 1978년 11월에 광주전남 지역의 진보적 의식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된 송백회는 광주 YWCA에 항쟁지도부를 결성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신군부에 맞서 싸웠다. 또한‘10일간의 광주해방구’에는 대동세상을 펼치는데 앞장 선 이름 없는 광주의 어머니들과, 방송선동가, 여성노동자, 여대생, 여중고생, 의분에 찬 시민여성들의 열렬한 투쟁과 희생적인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항쟁은 군인들의 총과 칼에 의해 수백 명의 참혹한 희생자와 수천 명의 연행자와 감금, 부상자를 비롯해 막대한 피해²를 남긴 채 패배로 막을 내렸다. 광주항쟁 이후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와 죽음과 같은 어둠의 시대에 광주항쟁의 경험과 기억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죽임의 현장에서 패배와 아픔은‘광주정신’의 새로운 씨앗으로 희망의 새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민중들의 끊임없는 진상 규명 투쟁과 기억 투쟁을 통해서‘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부활하였다.

‘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여성들이 발현한 광주정신, 젠더정의는 우리 민족 설화에서 내려온 생명평화의 원형(Arche)이 감지된다. 더 나아가 일제식민제국주의에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민족독립자결 평화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광주항쟁 40년 오늘의 시대에 여성항쟁사의 새로운 역사해석과 가치 창출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제 4차 산업의 최첨단 과학기술융합이 세계사의 새 단계로 진입하면서 전 우주적 신 전체주의지배체제 구축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광주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사는 삶을 향유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써 진화되는‘광주정신’과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1979년 박정희대통령 사망 직후 육사 11기, 12기생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와 함께 한 장성들이 12·12군사반란, 5·18광주항쟁을 진압하는 다단계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로 박정희대통령 시대 군부와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

2 5807건(‘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유형별 현황: 사망자 161명, 상이 후 사망자 113명, 행방불명자 78명, 상이자 2,504명, 연행·구금자 1217명 상이자, 연행·구금자 1610명, 기타 62명, 제분류 62명)

1. 광주항쟁과 송백회

1) 송백회(松栢會) 창립과 발아기

송백회(松栢會)³는 1978년 11월 반독재 민주화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가 분출하던 박정희정권 유신4말기에 광주전남권 여성들이 만든 전국 최초 민주여성단체이다. 조직구성은 6·3사태⁵,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사건⁶, 교육지표 사건⁷, 해직교사 가족들, 민주화운동 활동가 부인, 교회 내 유신타도 투쟁을 했던 민주인사 부인들을 비롯하여 교사, 간호사, 의사, 청년운동가 등 전문가 집단과 여성 노동자 등 각 분야의 진보적 사회의식을 가진 여성들로 민주화와 여성해방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참여하면서 결성되었다.

<진보적 사회의식을 가진 시민여성그룹>⁸

여성숙(목포의원원장), 조아라(YWCA회장), 이애신(YWCA총무), 김경천(YWCA프로그램간사), 홍희윤(소설가), 이윤정(청년운동가, YWCA간사), 정유아(석산고교사, YWCA간사), 임영희(현대문화연구소 간사, 극단광대), 김은경(기독교청년운동가), 김영심(간호사), 박경희(간호사), 김귀례(계림실험직원), 윤영숙(교사), 정황희(교사), 박인숙(교사), 김여옥(교사), 강성자(교사), 박두리(유치원교사), 김현주(양서협동조합 간사) 전삼순(일신방직노동자), 황수진(YWCA실험직원), 정현순(한전), 목포연동교회 청년회원, 나주지역청년회원, 강진지역 청년회원 등

<민주화운동 활동가 부인 및 구속자 가족>

3 ‘소나무처럼 푸르고 잣나무 같은 곶은 기상으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아 문병란 민족시인이 작명

4 박정희대통령(1961년~1979년) 장기집권 과정에서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위헌적인 계엄과 국회 해산 및 헌법 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하였다. 박정희정권의 실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5 6·3 시위(六三示威),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일으킨 운동이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당시 절정에 이른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6 유신평정 철폐를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시위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반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청학련관련자(1,024명)들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 세력으로 몰아 그중 180명을 구속하였다. 이중 인력당 사건과 관련된 8명은 사형되고 나머지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7 1978년 6월 전남대학교 교수 11인이 발표한 ‘우리교육지표’사건으로 학원민주화와 제적학생 복교,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한 사건으로 성내운, 이효재 교수 등이 해직 투옥되었다.

8 부록 참조

김영애(남편: 송기숙 교수), 김숙자(남편: 문병란 시인), 이귀임(남편:고 윤영규선생), 김서운(남편:박행삼 선생), 이명숙(남편: 김준태시인), 이경란(남편:박석무 선생), 정금자(남편: 윤광장 선생), 윤정애(남편: 임추섭선생), 문정희(남편: 임영천교수), 나혜영(남편: 강신석 목사), 김금안(남편: 고 박만철 선생), 윤경자(남편: 박형선 선생), 이향란(남편: 김운기 선생), 고 이소라(남편: 이강 선생), 이정(이강 선생 여동생), 정현애(남편: 김상윤 선생), 선소녀(남편: 이양현 선생), 김종희(남편:문덕희 선생) 정희옥(남편: 정상용 선생), 이영자(남편: 윤강옥선생), 노영숙(고 노준현선생 누나) 강진읍교회 8명, 목포연동교회 6명 등

당시에는 송백회 회원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사찰대상이 되었고 어느 때든 긴급조치 9호9나 반공법10으로 구속을 감수해야 했지만 민주화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송백회는 각 분과모임을 통해 한국근현대사, 여성운동사, 노동문제, 농촌문제, 핵문제, 환경, 공해문제, 기생관광 등 사회문제 전반을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시대적 인식을 공유하였다. 운영자금은 모금활동, 도자기 미술전 등을 펼쳐 자립적인 물질 토대를 형성하였다. 송백회는 초기부터 사회운동 전체로 시야를 넓히고 연대사업을 고민하여 수배 중인 운동가들을 지원하고 투옥된 양심수들의 옥바라지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송백회는 '70년대 사회운동세력인 청년학생운동 그룹, 진보적인 신부, 목사, 성직자 등 기독교운동 그룹, 문화운동그룹, 여성운동가(여성농민, 여성노동자, 기독교여성)그룹 등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대문화연구소, 들불야학, 백제야학, 극단 광대, 양서협동조합, 녹두서점,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NCC, YWCA, YMCA 등 단체들과 황석영, 윤한봉, 전홍준(6·3사태관련자), 김남주, 이강 같은 민주인사들과 더불어 한 가족과 같은 그물망으로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운동세력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YWCA를 기반으로 한 노동·농촌운동의 현장 조직화를 위해 이윤정, 정유아를 간사로 파견하고 홍희운(회장)은 이사로 임영희(간사)는 농촌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송백회는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하듯 한 단체를 통해 더 많은 조직으로 확대되어 갔다. 여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자각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전문적인 사회운동집단으로 성숙되어 갔다.

2) 광주항쟁에서 송백회의 역할

송백회 여성들은 독재 말기로 치달으며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던 유신정권 아래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인간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시하며 활동을 전개했다. 송백회 여성들은 박정희 시해로 유신정권이 붕괴되고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정세를 보며 민중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탄압이 들어올 것을 예견

9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0 정치적 악법, 5·16군사정변 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민주화운동가들을 반공법에 적용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 사형을 집행했다.

했으며 각자 결의가 된 상태에서 '80년 5월과 마주하게 된다. 5·17전국비상계엄11이 선포 되고 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자행되자 송백회 여성들은 신군부와 맞서 싸우는 전위조직으로 5월 광주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광주항쟁에서 송백회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송백회는 YWCA항쟁지도부를 결성하였다. 5·17전국비상계엄령으로 연행되거나 피신중인 민주화운동가들과 연락이 두절되고 그들의 행방을 찾는 공백 속에서 신군부 학살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송백회 여성들은 즉각적으로 인간적·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다양한 운동조직들을 동원하여 항쟁에 참여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대자보 및 성명서 작성, 투사회보 제작, 취사, 검은 리본 제작, 선전, 홍보 등 모든 활동이 여성들에 의해 이곳에서 진행 되었다.

송백회의 홍희윤, 정유아, 이윤정, 임영희, 정현애 등은 극단 광대, 양서협동조합, 들불야학, 백제야학, JOC 등을 결집하여 YWCA를 거점으로 YWCA 항쟁지도부를 결성하여 도청지도부의 윤상원, 정상용, 정해직, 이양현, 김영철, 윤강옥, 박효선 등과 함께 결사항쟁투쟁의 전의를 다지게 된다. YWCA항쟁공동체는 송백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성직자그룹, 문화운동그룹, 여성운동가그룹 청년운동가그룹, 야학운동그룹들이 하나의 연결망으로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절대공동체를 형성하였다.

YWCA항쟁지도부는 무기를 반납하자는 수습파들과는 의견을 달리하며 '끝까지 싸우자'는 항쟁파의 한 중심에 서서 사수투쟁을 전개하였다. 1980년 5월 26일 오후 신군부는 최후통첩을 하였다. 제5차 시민권기대회를 끝내고 도청지도부와 YWCA 지도부는 최후통첩에 대한 긴급대책을 위해 YWCA강당(소심당)에서 마지막 회합을 하였다. '끝까지 싸우자! 우리는 폭도가 아님을 죽음으로써 증명하자. 광주를 목숨으로 지키자!'는 결사항전을 결의하고 '이 뜻을 역사에 남기자.'며 대변인 윤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기자단에게 마지막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현재 남아있는 대변인 마지막 브리핑 기사는 사수투쟁을 결의한 시민군들의 뜻이었다.

11 1979년 12·12군사반란으로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황여시, 주영복 등 신군부 세력들이 야당 정치인과 노동계, 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였다. 전두환 신군부 내란세력은 야당 정치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을 체포하고 정치활동을 규제 및 강제적 정계은퇴를 유도하였으며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과 칼로서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두 번째는 송백회는 시민항쟁에 필요한 대자보¹² 및 성명서 작성, 추모 검은리본¹³ 제작, 투사회보¹⁴ 제작과 배포, 선전·홍보활동(Peace communication)을 기획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분담하고 집체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 송백회는 항쟁초기부터 광주 사회운동권의 핵심인물들과 회합해 왔으며 5월 24일 저녁 5시 30분에는 YWCA 소심당에서 정유아, 이윤정, 정현애, 윤상원, 정상용, 이양현, 박효선, 박용준, 김상집 등이 회합하여 시민궐기대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시민궐기대회추진위원회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집행부는 기획부(이양현, 정상용, 윤강욱), 집행부(정유아, 이윤정, 정현애), 홍보부(박용준, 윤상원)로 구성되었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시민들을 향해‘폭도들의 난동, 간첩침투, 빨갱이’등의 유언비어와 뼈라를 유포하여 긴장 구조를 만들고 안보를 앞세워 내부분열을 조장해 냈다. 이러한 억압에 대항하여 송백회는 대자보 및 성명서 작성 내용에 있어 시민들이 애국과 민주수호 신념이 더 고양될 수 있도록 선전홍보에 필요한 논리를 생산하였다. 5월 25일 이윤정은 최규하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내리지도 않고 광주시민들에게 뿌린 유인물에 대해 즉각적으로‘최규하 과도정부에 보내는 글’을 써서 호소하였다. 아침부터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도청분수대에 모여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총의를 모아 신군부가 조작하는 안보프레임에 대항하며‘전두환화형식’등을 실행하였다. 들불야학의‘투사회보’발행도 YWCA로 옮겨와 ‘민주시민회보’로 이름을 바꾸고 9호부터 인쇄에 들어갔다. 인쇄, 물자조달, 배포, 문안작성까지 총 20여명이 12호까지 제작하여 하루에 3-4만장이 뿌려졌다. 모든 언론이 차단되고 신문이 없는 고립무원에 있는 시도민들에게 투사회보나 대자보는 홍보매체로서 유일한 매개였다.

11공수여단의 대검 살상과 집단발포로 시체가 대거 발생하자 무고한 죽음을 외곽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검은 리본을 제작하여 수만의 시민들 가슴에 달아 주었다. 임영희는 24일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에서‘민주화여!’(이윤정 작성) 시를 낭독하여 시민들의 울음바다가 되는 호응을 받았고 25일 궐기대회에서 홍희윤이 여성대표로‘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는 문화선전대 활동을 하였다.

세 번째는 자금지원 및 물품조달, 모금, 식량공급, 화염병 제작, 취사팀 구성, 부상자 파악, 시체염, 관 구입 등을 담당하였다. 항쟁초기부터 송백회 여성들은 즉각적인 조직적 대응을 하면서 홍희윤(회장)은 도자기 전 시회로 비축한 투쟁기금과 자신의 가계부를 털어 장기전에 대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기금으로 검은 리본제작, 시체 염에 필요한 솜, 가제 천, 관 구입, 시민군 취사를 위한 된장, 쌀 등 구입과 시민궐기대회를 준

12 광주항쟁에서 선전홍보 매체로 활용한 길거리 벽보판, 건물 벽 등에 부착한 대형의 게시문이다. 시민들의 주장과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지침, 뉴스, 항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신군부의 시민학살을 광주시 외곽 거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내기 위해 제작되어 수만의 시민들이 착용하였다.

14 5·18광주항쟁에서 들불야학이 중심이 된 시민군들이 만든 저항언론이자 대안언론으로 시민들의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광주항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하였다. 송백회 기금은 항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국에 흩어진 지명수배자 뒷바라지, 구속자들의 옥바라지, 희생자 및 부상자 자녀들의 생활과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송백회는 일관되게 항쟁의 의지를 지켜 나갔다. 신군부 세력은 광주를 타 지역과 고립시키고 운동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미디어 매체를 동원하여 광주항쟁을 '비상사태 수습론, 안보위협론' 등의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마치 '간첩, 불순분자, 북한의 사주' 등에 의해 전개된 지역적인 사태로 몰아갔다. 심지어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 외에도 항쟁지도부가 있었던 도청건물에서 독침사건 발생을 조작하였다. 이렇듯 신군부는 안보(안정)논리로 하는 억압 프레임을 작용하여 극도의 긴장 구조를 만들고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조기 진압하려고 했다. YWCA 항쟁공동체는 신군부 세력이 안보(National security)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애국, 민주화' 논리를 전파하여 대항하였다. 당시 공식적으로 발행된 투사회보 등 전단지과 시민궐기대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등 문안과 대자보에 나타난 슬로건과 구호에서 항쟁공동체의 이러한 애국과 민주화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렇듯 일관된 신념과 의지로 항쟁내부에서 있었던 수습파와 항쟁파간 갈등 속에서 항쟁파인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구성(5월 25일)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기반과 논리를 제공하였다. YWCA 항쟁공동체와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불의에 끝까지 대항하여 결사항전과 사수투쟁으로 정의를 지켰다.

2. 광주민중항쟁에서 여성들의 활동

1) 대동세상15 건설에 앞장선 이름 없는 광주어머니들

위대한 '절대공동체' 16형성의 주역은 이름 없이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자식처럼 시민군을 지켜준 광주의 어머니들이었다. 공수부대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보고 분노한 어머니들은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건네주며 격려하였고 쫓기는 학생들을 무조건 숨겨주었다. 도로 부근 상점과 주택가에는 물통과 세숫대야에 물을 채워 밖에 내놓았고 리어카나 합지로 공사장 주변의 돌과 자갈을 실어 나르며 시위에 참여하였다. 5월 21일 시민군들의 무장투쟁이 시작되자 지원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체들이 많아지자 마스크를 제작하고 각 동 별로 돈과 쌀을 걷어 거리에 가마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위차량에 실어 주었다. 양동시장, 대인시장, 산수시장, 학동시장 서방시장 상인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물적 지원에 나섰다.

광주 뿐 아니라 인근 회순, 무안, 강진, 목포 지역에서도 도민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5월 22일부터 궐기대회가 열린 목포에서는 선창에서 행상하는 아주머니들이 쌀을 걷어 리어카에 밥을 가득 싣고 와서 시위대를 격려했다. 화순, 영암, 나주, 해남등지에서도 동네 주부들이 시민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주먹밥과 음료수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5 시민들이 광주항쟁에서 구현한 광주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16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피와 밥을 함께 나누고 생명과 죽음을 넘어서는 공동체

2) 시민의 심혼을 울린 뛰어난 선동가, 방송선전(Peace communication)

항쟁초기 시민들의 심금을 울린 가두방송을 한 뛰어난 선동가는 여성들이었다. 17 20일 새벽 광주일고 앞에서 유방이 잘린 여학생 시신을 보고 마이크와 앰프를 구해 본격적으로 가두방송을 나서서 시내 전역을 돌면서 계엄군의 잔학상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21일 오후에는 차량 시위대의 선두에서 시체 2구를 신고 가두방송에 나섰다. 마지막 도청이 진압되는 새벽, 계엄군의 진입을 알리는 다급한 방송¹⁸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시가지를 울렸고 지금도 시민들의 가슴에 애절하게 기억되고 있다. 계엄군의 잔학한 폭력을 목격하고 분노한 많은 여성들이 방송차량을 타고 시내 곳곳을 다니며 호소를 하였다. 방송으로 선전선동에 앞장 선 여성들은 대부분 구속이 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3) 여성노동자들의 활동

'70년대 후반 제조업체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조직화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일신방직, 전남방직, 로케트건전지, 대규모사업장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전남제사, 남해어망 등 중소기업장까지 현장노동자를 중심으로 소그룹 학습과 JOC활동을 통해서 노동운동역량이 확대되어 노·학연대도 공고해졌다. 5월 18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오전 9시부터 YWCA 사회문제부 주관으로 여성노동자 중간간부 대상으로 한 민주노동교육과 JOC주관으로 호남전기 3월 임금투쟁 성과평가교육이 있었다. 이렇듯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은 20일 저녁,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2일 이후에는 제조업체 여성노동자들이 항쟁에 대거 참여하였고 무기점수를 위해 강진, 해남, 무안 등 시민군 차량시위에 동승하였다. 일신방직 여성노동자들은 화순, 강진, 해남등지로 시민군들과 원정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버스와 트럭에 탑승하여 '김대중 석방, 노동3권 보장'등을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로 사망자가 늘어 관이 부족하자 광주 인근 지방으로 내려가 관을 구입해 오는 데 적극 동참하였다. 마지막 날까지 도청 안에 있었던 취사팀은 YWCA에서 취사조를 조직해서 도청에 들어갔다. 이정, 최정임, 김순이 등 카톨릭 노동청년회(JOC)소속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으로 27일 새벽 교전과정에서 도청을 나와 동명교회 종마루 다락방에서 처절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이들을 엄호하여 인솔해 준 시민군 학생은 도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살을 당하였다.

4) 용감한 여중·여고생들

계엄군들의 무차별한 학살과 만행에 분노한 중앙여고생들이 5월 19일 오전 11시경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고 같은 날 오후 2시 광산여고 학생회 간부들이 가두시위를 결의하였다. 시위현장에서 계엄군의 잔학상을 목격한 여중생, 여고생들이 나서서 헌혈에 동참하고 시민군들에게 음료수 김밥을 전달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하

17 전춘심(구속), 차명숙 (구속)

18 박영순(구속)

였고 도청 안에서 시민군들의 취사를 담당하고 시위차량에 동승하여 '계엄해제, 독재타도'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

5) 의분에 찬 유흥업소여성들

18일 오후부터 시민들 시위가 본격화되자 요식업소 여성들은 물수건과 치약을 준비하여 최루탄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8일 7공수여단 투입으로 곤봉과 대검에 부상자들이 늘어나고 5월 20일 오후부터 계엄군과 교전이 시작되면서 광주시내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났다. 21일 군인들이 도청 앞에서 대치 중이던 시민들을 향한 무작위 집단 발포가 있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총상환자들이 늘어나자 혈액이 부족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적십자병원, 기독교병원,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에 헌혈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금동, 황금동 일대에서 일하던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들까지 앞장을 섰다. 도청 옆 유흥업소 아방궁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솔선수범하여 시신이 안치된 상무관¹⁹으로 뛰어와 시체 옆을 하며 시신안치와 분향대를 지켰다. 항쟁이 끝난 후 이들은 시위대를 고무 격려 했다는 고무죄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3. 광주항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오월투쟁

1) 광주항쟁 진상 알리기

광주항쟁을 진압한 신군부는 피로 물든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였다. 항쟁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계엄사에 끌려가 여러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다. 패배한 항쟁에 대한 송백회 여성들의 좌절은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에 생사를 서로 확인한 이윤정, 정유아, 임영희는 지명 수배되어 피신하였고, YWCA 조아라회장, 이에신 총무, 정현애는 동생 정현순과 가족 4명이 구속되었다. 모두가 폭도로 불리워졌다. 구속자 부인 이영자(윤강옥 부인), 정희옥(정상용 부인) 등은 과일장사, 멸치장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생존을 연명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희생자, 부상자, 구속자, 수배자들을 파악하고 돕는 일이었다. 또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송백회 회장 홍희윤이 중심이 되어 대책을 세워나갔다. 많은 숨은 독지자들이 도움을 주어 비밀리에 모금을 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하였다. 다행히 구속과 수배를 면한 여성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양말과 내의, 모기약 등을 팔아 기금을 마련했다. 홍성담 판화를 적극적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판화전을 통해서 패배와 좌절과 분노에 찬 시민들을 위로하고 오월의 진실을 알려냈다. 이렇듯 모아진 기금으로 화순지역 김성전, 정상용, 윤영규, 윤광옥, 이양현 등 구속자 가족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학비마련과 교육보험을 들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또한 부상과 고문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김영철을 사망하기 전까지 송백회 김영심이

¹⁹ 광주항쟁에서 희생된 사망자들을 안치했던 장소, 유흥업소 여성들이 시신을 안치하고 추념하는 일을 했던 곳

중심이 되어 도왔다. 서울로 도피한 임영희는 수배 중에도 '80년 7월 초 서울대 학생운동가 황선진의 집에서 전용호, 김선출과 함께 도청 앞 분수대 시민궐기대회에서 낭독했던 성명서, 투사회보 등을 녹음테이프로 제작해 전국의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 뿌렸다. 송백회 회장 홍희윤과 임영희는 김양래, 황일봉과 함께 구속자, 부상자 명단을 지역단위로 분류하고 상무대 구속자 재판일지 등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홍희윤이 조봉훈, 정용화에게 전달되어 나중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편찬에 도움을 주었다. 전홍준은 기독교병원 의사로 전대병원, 적십자병원, 기독교병원에서 사망자 검시조서, 의무기록을 수집해서 임영희에게 전달했고 정보망을 피해 서울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태호에게 전달하였다. 이런 일들은 모두 구속을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항쟁 후 모든 수습을 도맡아 활동하던 홍희윤이 조봉훈이 구속되면서 신한민보사건으로 연루, 조총련계 자금책으로 지목되어 연행 수사를 받았다. 송백회를 배후로 보고 홍희윤을 엮으려고 보안사 수사가 된 것이다.

<5·18항쟁이후 수배자 도피처 마련 및 구속자 돕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

허병섭(목사), 백영흠(목사), 강연균(화백), 이철순(전국여성노동자회회장), 윤정모(작가), 홍정경(화가), 홍승연(TV드라마작가), 이동철(국회의원), 한동수(광주관광호텔상무)·노명신, 김신희(사업), 김영희(낙원유치원원장), 정선자, 이광웅, 정인경(교사), 김은경(목사), 이명혜, 고정희(시인), 허순이(교사), 김지선, 김문자, 송경란, 성찬성, 문국주, 임기준(목사), 서영주(목사), 최권행(교수), 정찬대, 최동현 등

2)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운동

극단 <광대>는 항쟁 이후 송백회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단원 거의가 도피와 연행 구속 등으로 거의 와해되기 전에 극단 <광대>를 추슬러 김정희는 1981년 초 '호랑이놀이'를 공연했다. 이것은 광주는 현상적으로 실패했을 뿐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 한 것인데 참여한 관객들 모두 울었다. '80년 겨울 임영희는 황석영의 주선으로 제주도 수놓음 소극장 개관기념으로 제주도 삼별초 난20을 소재로 한 마당극 '항파두리' 21에 광대 회원들과 참석해 광주항쟁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항쟁 이후 제주도에서 황석영과 처음 만난 임영희는 극단광대 해체 이후 전국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였다. 광주항쟁을 알리는 작업을 위해 1981년 1월, 군부의 감시망을 피해 양림교회 산하에 문화선교팀인 극단<갈릴리>를 구성하였다. 단원으로는 광대회원이었던 임영희, 김빌립, 김영희, 최인선, 임희숙, 김정희, 김태종과 새로운 구성원으로 오정목, 김도일, 조경자, 김한중, 최병진, 안은경, 은우근 등 단원 20명을 확보하고 조선대, 전남대, 기독교장로회 청년들과 함께 오월진상을 알리는 대본을 만들어 1981년 서울 YMCA 다락원 캠프장, 구례 천주교

20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무력적 보위기구로 40여년 지속 된 몽고제국(중국)에 대항한 핵심 부대였다. 이들은 원(중국)나라에 굴복하여 강화를 맺은 정부에 반기를 들고 제주도에 항몽의 최후거점으로 삼았다.

21 고려 무신정권 때 특수 부대인 삼별초군이 최후까지 몽고제국에 대항한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유서 깊은 유적지

회, 보성, 제주도 등 전국 순회공연을 누비며 광주학살 진상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하였다. 1980년 12월경, 죽은 영혼이 너무 억울해 단숨에 녹음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제작한 노래 테이프는 은우근이 후원하고 임영희와 같이 보급하였다. 수익금은 구속자들 영치금을 위해 사용하였다.

1981년 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죽은 넋들을 위로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김종률 작곡발표회는 전두환 치하에서 감옥 갈 것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하였다. 홍희윤, 임영희, 김민기가 함께 기획하고 사회는 오정묵, 슬라이드는 홍성담이 맡았고 주제가는 '나는 오늘 검은 리본 달았지'였다.

작곡발표회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무난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종률이 대학가요제 수상가수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광주경찰서는 작곡발표회에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허가해 주었다. 그날 발표회는 참석자 모두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1982년 넋풀이22 테이프를 제작 배포하여 광주의 진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김종률은 송백회가 지원한 백제야학 강학으로 광주항쟁 이전부터 긴밀한 관계망을 가졌던 김민기, 이훈우, 오정묵, 임영희가 함께하여 '나는 검은리본 달았지'를 작업하였다.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의 영원한 국민애국가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넋풀이 테이프에 실린 곡이다. 1982년 2월경, 황석영이 광주항쟁이 폭도로 매도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광주항쟁을알려야 하니까 전용호를 새로 이사한 운암동(광주 북구 운암동 154-5번지)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획을 한 것으로 '넋풀이'테이프 제작을 하였다. 황석영·홍희윤 집에서, 임영희, 윤만식, 이훈우, 김옥기, 김은경, 임희숙, 김종률, 전용호, 김선출 등이 참여하였다. 정보기관에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남의 눈을 피해 소리와 전기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창문에 담요를 치고 3일간 숙식하면서 카세트테이프로 녹음을 하였다.

이렇듯 광주의 작가들은 오월의 시와 노래, 소설과 그림들로 짓눌린 진실을 폭로하고 탄압을 감내하였다. 1980년 5·18광주항쟁은 패배와 좌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오월문화운동23으로 전개 되었고 민중들의 5·18 학살에 대한 끊임없는 진상규명투쟁과 기억투쟁은 해를 거듭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부활하였다.

2003년 송백회 회장 홍희담은 그녀의 소설 '깃발'을 창작하였고 광주항쟁의 역사적 경험과 원체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근원을 치열하게 파헤치는 작품으로 오월의 진실과 정신을 기록하고 있다.

<송백회와 문화운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

황석영(소설가), 홍성담(화가), 김민기(가수), 임진택(판소리), 채희환(춤꾼), 김영동(작곡가), 무세중(봉산탈춤), 김봉준(화가), 윤기현(아동작가), 김남주(시인), 문병란(시인), 박몽구(시인), 임철우(시인), 박효선(연

22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극, 1982년 '5·18민중항쟁' 2주기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래극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넋풀이에 수록된 7곡 중 엔딩 곡이다.

23 광주항쟁 이후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신군부정권에 저항한 오월운동 과정에서 연극, 미술, 노래, 마당극 등 문화예술 각 장르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전개했던 민족·민중·민주화 운동, 예컨대 대형 걸개그림은 미술패들에 의해 공동제작되어 시위 및 집회, 추모제에서 사용하였다.

극), 김태종, 윤만식(마당극), 임영희, 김선출, 김윤기, 임희숙, 김정희, 최인선, 이현주, 김빌립, 조경자, 안은경, 문영숙, 오정묵(기획), 은우근, 전용호, 김종률 등

3) 끝나지 않는 광주항쟁, 오월운동의 불꽃

5·18항쟁을 진압한 신군부 권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였다. 오월 광주의 진상은 왜곡되고 질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가족들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위해 오월운동의 불꽃을 지펴 올렸다.

오월운동은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기념사업 등을 이슈로 유가족, 부상자, 구속자 등 단체가 형성되었다. 정현애는 구속되어 고초를 겪고 풀려난 후 안성례, 노영숙 이명자 등 구속자 가족들과 구속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석방운동의 전면에 섰다. 이윤정은 전국지명 수배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 1987년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 창립 당시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다 3대 회장을 맡았다. 또한 통일운동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구속이 되는 고난을 겪었다. 임영희는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 창립당시 여성부장을 맡아서 활동하다가 오월후원회 운영위원, 5·18기념재단 설립위원이었다. 조아라, 이애신, 정현애, 정유아, 이윤정, 임영희 등 살아남은 여성들은 오월운동의 한길에서 통일운동, 교사운동, 여성운동 등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는 운동의 지평을 열어갔다.

4.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오월여성들의 평화문화활동: ‘오월여성평화를 품다’

‘오월여성 평화를 품다’는 국내외 광주항쟁을 경험한 여성들, 오월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후대 여성들의 어젠더이고 미래비전이다. 오월의 여성24들이 죽음을 넘어 피와 밥을 나누며 꿈꾸어 온 미래사회는 민족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의 상생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분쟁지역과 연대하고 광주정신을 실천해 가는 평화문화활동을 통해서 세계적 평화생명망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오월의 여성들은 소설, 도예, 연극, 한지공예, 들꽃자수 등 여러 장르별 문화행동으로 광주정신을 형상화해 사람과 지역을 엮어가는 평화상생명(web)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이당금과 정순임은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광장에서 오키나와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군사전략기지 확대 반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주제로 표출한 노상 포퍼먼스는 수백 명의 오키나와 시민들에게 감동과 연대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미래세대에게 광주항쟁은 역사속의 동화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문화적 행동과 체험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오월여성들은 풀뿌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세계 시민들과 만나서 한지공예를 소재로 평화얼굴을 함께 만들고, 도예로 주먹밥을 빚으며 오월의 기억과 경험을 나누며 학습하

24 5·18광주항쟁에 살아남은 여성

고 있다. 들꽃자수공동체는 우리 땅 지천에 피어 있는 들꽃을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인구의 30%가 해외로 유랑을 떠났던 독립지사들의 영혼을 담기도 하고 광주항쟁에서 어딘가에 암매장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영혼을 자수로 표현한다. 오월의 여성들은 세계 제 2차 대전 종결 후 미국이 주도한 민족분단에 대한 저항운동인 제주 4·3항쟁, 여수순천사건, 노근리 민간인 학살을 기억하고 연대한다. 또한 성주 사드배치, 오키나와 등 동북아 전진기지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확장을 반대한다. 지금 한반도는 지난 75년간 지속된 이 반 평화체제는 또다시 미국제일주의 중심의 신 냉전체제로 전개되면서 제 3차 세계대전의 유발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미얀마, 베트남 등 분쟁지역과 연대하고 스칸디나비아 중립국들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해온 공헌을 배우고 세계평화시민들과 함께 갈등과 분쟁을 넘어 온 인류가 온전히 상생하는 평화운동의 비전을 모색해 가고 있다.

5. 광주항쟁의 여성에서 찾은 광주정신: 한민족 생명평화의 원형(Arche)

광주항쟁에서 표출된 젠더정의는 인류역사에서 상생태평질서의 원형을 이어받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은 한민족의 민족사적 여명을 밝히는 민족설화에서 생명평화의 원형이 느껴진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표현된 마고성녀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이다. 이 기운은 민족의 상생적 살림살이(삶)의 근간을 형성하여 주었다. 이는 조선민중 속의 종교적 혼백은 무가(巫家)전통을 통하여 삼국시대의 풍류문화로 이어졌고 후삼국(후백제)의 저항적 미륵유토피아의 비전으로 이어졌으며 고려시대에는 몽고제국 침공에 대한 저항적 비전으로 심화되었다. 광주항쟁은 일제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민족독립자결 평화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호남의 여성희생은 근대 식민지체제의 젠더폭력의 핵심이었으며 여성생명평화운동의 불씨가 되었으며 이것은 전 세계 민족해방의 횃불 점화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숭선하여 몸과 마음으로 광주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함께 사는 삶인 ‘대동세상’,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 사즉생(死即生)의 ‘절대정의’²⁵, 피와 밥을 나누는 절대공동체의 ‘평화정신’을 발현한 것이다.

맺음말

5·18광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으로 재평가된 오늘에도 당시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동은 남성 중심의 역사 해석 속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일본 제국주의시대, 미국지배의 냉

25 ‘죽어야 다시 살아 난다’, 즉 개인의 죽음으로서 공동체가 추구한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적 가치가 역사 속에서 부활한다는 의미를 함의한 문구이다. 광주항쟁에서 신군부는 시민군들을 폭도라고 규정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신군부의 광주 진압에 대한 최후통첩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자신의 목숨으로 수호할 것을 결의한 사람들은 끝까지 현장에 남아 저항하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1980년 5월27일 새벽, 신군부의 총정작전에 의해 산화하였다.

전국가체제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은 물론 광주항쟁에서 계엄군에 의한 여성들의 집단성폭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대이후 모든 역사기록에 있어 민중항쟁의 역사, 전쟁사 중심은 장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항쟁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새로운 역사해석과 젠더 정의(Gender Justice)의 실현은 이 시대가 쥐고 가야 할 시대 정신이다. 5·18항쟁에서 여성들에 의해 발현된 광주정신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A sprit of resistance against injustice to the end), 둘째는 해방공간에서 자치와 절대공동체 형성과 높은 도덕성의 발현(The formation of the autonomy and absolved community and the manifestation of the high morality in the liberation space), 마지막으로 정의를 위해 죽음을 넘어선 사수투쟁과 평화정신(For the sake of justice, struggling to defend beyond the death and the sprite of peace)이다.

이러한 항쟁정신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숭선하여 몸과 마음으로 광주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 함께 사는 삶으로 대동세상을 만들고 생명체를 파괴하는 신군부와 냉전체제에 저항하며 피와 밥을 나누는 평화정신을 발현한 것이다.

광주항쟁 40주년, 광주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5·18광주정신으로 아르헨티나, 독일, 대만 등 세계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COVID-19, 경제전쟁, 계급적 갈등, 젠더, 민족, 인종적 문화적 갈등, 과학기술과 산업화로 인한 생태 생물학적 갈등, 근대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과 폭력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폭력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는 길은 평화이며 평화는 생명체를 살리는 문화행동이다.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함께 사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평화의 꿈을 꾸는 것이다. 세계 평화시민들이 한반도의 민족절화에서 전승되고 있는 생명평화의 원형(Arche)인 대동세상을 만들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문화행동을 하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운동사에는 여성들이 남긴 인류의 유산이 많이 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저항한 오월의 광장 어머니들(Mothers of the Plaza de Mayo), 라이베리아 여성의 지위와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온 엘렌 존슨 셸리프(Ellen Johnson Sirleaf)대통령과 레이마 보위, 타와쿨 카르만의 빛나는 활동을 비롯하여 아일랜드의 정치적 갈등과 살상(Policide)을 평화와 치유를 위해 1976년에 메이리드·코리건 마기르(Mairead Corrigan-Maquire)와 베티 윌리엄스(Betty Williams)가 함께 창설한 평화공동체(Community for Peace People)등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연대해야 할 감동적 평화문화행동이다.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세계적 평화생명망(web)을 구축하여야 한다.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망,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망은 상생지구를 이루고 가정과 마을의 생명망을 보전한다. 여성은 생명에 대한 케어의 몸과 마음의 현신이다. 21세기 지구촌의 핵심과제는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이다. 한반

도의 상생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평화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의 문화행동이 필요하다.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길에 세계 여성시민이 나설 것을 요청하고 요청 드린다.

후기

빛으로 피어난 주먹밥²⁶

‘80년 5월, 주먹밥은 하늘이었다.

광주시민들의 생명이었다.

탱크와 M16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사방이 포위된 고립무원 광주에서,

신군부가 유포한 온갖 유언비어,

주먹밥은 배고픈 시민군들에게 건네 준 따뜻한 사랑이었다.

시민들을 감싸 준 뜨거운 눈물이었다.

주먹밥 안에서 너와 나는 우리가 되었다. 사랑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불의에 굴하지 않았다.

10일간의 광주 해방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주먹밥은 광주의 어머니들이 만든 대동세상,

대인시장, 양동시장, 서방시장,

이름 없는 광주 어머니들이 골목마다 가마솥을 걸고, 리어카에 실어 나른 주먹밥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해방세상, 대동세상, 생명의 향연이었다.

흙으로 빚어낸 주먹밥 등은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빛.

우리가 가야 할 평등세상, 통일세상, 상생평화 생명의 향연,

빛으로 피어난 주먹밥은

잔혹한 5월의 기억에서 길어 올린 5월의 새 희망.

무등에서 백두로 저 멀리 바이칼 호수로

널리 널리 세계로 빛이 되어 퍼져가리.

80년 오월, 주먹밥은 하늘이었다. 광주시민들의 생명이었다

²⁶ 광주항쟁에서 광주의 어머니들이 집집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아온 쌀로 길거리에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퍼 밥을 지어 소금과 버물러서 시민군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손주먹 모양의 밥

Radiance of Jumeok Bab

In May 1980, Jumeok Bab was Heaven, life itself, for the Gwangju citizens.

In the midst of all the evil rumors spread by the military troops,

In Gwangju, helplessly isolated and encircled by soldiers armed with tanks and M-16s,

Jumeok Bab was warm love for the hungry citizens who were resisting.

It was hot tears embracing the citizens.

In Jumeok Bab, you and I became “we.” We all became love.

Becoming one, we refused to bend to injustice.

In the liberated zone of Gwangju,

For 10 days, we held the flag of democracy high.

Jumeok Bab, made by the mothers of Gwangju, created one great world.

In Daein market, Yangdong market, Sebang market, in every alley of the city,

Nameless Gwangju mothers cooked rice, made it into Jumeok Bab, loaded it on pushcarts and took it around to everyone, sharing a liberated and united world, a feast of life.

The lantern of Jumeok Bab, originating from the earth, lighted up an era of darkness.

The radiance of Jumeok Bab lit our pathway to a world of equality, unification, and convivial life together.

<Radiance of Jumeok Bab> brings new hope in May, out of the cruel memories of that past May.

May its light shine from Mt. Mudeung to Mt. Baekdu, to faraway Lake Baikal and all across the world.

The Jumeok Bab of May 1980 was Heaven. It was life for the Gwangju citizens.

부 록

본문에 제기된 인명 중 송백회 일부 회원 22인의 간단 인명록을 기록하고 추후 더 보완해 가고자 한다

1. 홍희운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신여고, 이화여대를 국문과를 졸업하고 소설가 황석영과 결혼하여 해남과 광주에서 살았다. 1978년 광주에 정착하여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을 한 여성들과 송백회를 창립하고 총무, 회장을

역임하였다. 5·18광주항쟁 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헌혈을 호소하고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에 주부 대표로 '민주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성명서를 읽기도 했다. 광주항쟁으로 수배된 윤한봉을 미국으로 밀항시키는데 깊숙이 관여하였고 1981년 5·18자료를 수집하던 조봉훈이 구속되면서 자금책으로 몰려 연행 및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1988년 '깃발'이 창비문학상을 받으면서 소설가로 등단한 후 들불열사추모비 건립위원회, 김남주기념사업회,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있다.

2. 김영심

1957년 담양 출생으로 전남여고, 조선대병설간호전문대, 방송통신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송백회 창립멤버로 학습모임에 참여했고 1980년 전남 화순보건소에 근무하면서 5월항쟁을 목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3. 김은경

1955년 광주에서 출생하여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송백회 창립에 참여하였고 5·18광주항쟁 시에는 서울에 있으면서 광주에서 피신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윤한봉 밀항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현재 전북 익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전북 거래하나 이사장, 전북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다.

4. 김종희

1953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광주 중앙여고와 광주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했다.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된 문덕희와 결혼한 후 민주화운동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송백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에 예비검속된 남편을 찾으러 다니면서 광주항쟁에 참여하였다. 1987년 서울로 이사하여 교직생활을 한 후 정년퇴임 후 교회합주단 봉사를 하고 있다.

5. 노영숙

1954년 광주출생으로 YWCA청년부, 간디연구모임을 하면서 사회인식에 눈을 떴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동생 노준현의 구속으로 양심수석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송백회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그후 5·18구속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하였으며 오월어머니집 사무총장과 3대 관장을 역임하였다.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 사회대 디아스포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민주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6. 김서운

김서운은 194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남편 박행삼선생과 함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가톨릭농민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활동을 하였다.

7. 정금자

1947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로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윤광장선생이 남편으로 운동권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8. 이경란

194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다산 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박석무선생이 남편이다.

9. 이귀님

1940년 광주 금남로에 태어났다. 수피아여중과 서울에서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 교육원에서 2년 수학하고 전도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송백회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광주항쟁에서 남편 윤영규선생이 수배와 구속이 되어 구속자가족협의회에 참여하며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활동에 앞장 서 왔다. 현재 오월 어머니집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교육운동의 시작이 된 YMCA교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참교육운동을 선도하고 교단에서 해직을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윤영규선생이 남편이다.

10. 윤정애

1948년 해남 현산면 백포에서 태어났다. 조선대학교 여자대학에서 원예과를 졸업하였고 송백회 창립멤버로 활동하였다. Y교사 운동을 시작으로 참교육운동으로 교단에서 해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운동을 선도해 온 임추섭선생이 남편이다.

11. 박경희

1955년 광주 북동에서 태어났다. 전남여고, 전남대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적십자병원에 근무하며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로 현대문화연구소를 찾았다가 송백회와 인연이 되었다. 1979년 10월부터 1984년 4월까지 광주 기독교병원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광주항쟁을 겪었다. 1981년 9월 최연석목사와 결혼해 1녀를 두고 있다. 1984년 남편을 따라 강진 병영교회에서 7년, 여수중부교회에서 28년 있는 동안 청소년 상담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다. 2018년 5월 광주 무등산 자락으로 돌아왔고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

12. 박인숙

1953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송실대와 고려대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 1978년 함평 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며 송백회에 들어와 학습모임 멤버로 활동하였다. 참교육 1세대로 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1989년 교단에서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제1대 전남도교육위원, 장흥교육장을 역임하고 함평여고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하였다. 전남대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현재 나주에서 다우리행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13. 선소녀

1954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조광피혁에서 위장 취업하여 노동자 권익활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던 이양현과 결혼하였다. 이양현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도청 항쟁지도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여 끝까지 남았다가 총상을 입었다. 송원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기도하고 호남대 토목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한국산문지에 수필가로 등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남농미술제와 소치전에 입상을 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민센터 문고 사서로 봉사하고 있다.

14. 윤경자

1953년 강진군 칠량면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강진으로 내려가 칠량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 장로교청년회 활동을 했다. 1980년 5월 예비검속 된 남편 박형선의 석방투쟁을 하면서 광주항쟁을 겪었고 수배 중인 오빠 윤한봉을 미국으로 밀항하도록 했다. 송백회 창립멤버로 수 백명의 밥을 거뜬히 해내는 큰손으로 정평이 나있다. 5·18기념재단이사장을 역임한 윤광장도 윤경자의 오빠다. 현재 성당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15. 이윤정

1955년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서 태어나 전남여중고를 졸업했다. 고교시절 동부교회 백영흠목사의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인사들과 교분을 맺었다. 1978년 송백회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서기를 맡아 활동하였고, YWCA 사회문제부 간사를 하다가 광주항쟁에 참여하였다. 시민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활동하였고 계엄법 및 포고령 위반으로 전국 지명수배 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해 1987년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를 결성하고 3대 회장을 맡았으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공동의장을 역임하였다. 1991년 초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서 활동하였고, 해외와 통일운동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3년 6개월 복역한 바 있다. 2012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평화학 등을 강의하였다.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르웨이를 비롯한 국내외 평화운동가들과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16. 이애신

1923에 전남 여천에서 태어나 일본 명치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64년부터 광주YWCA 회원으로 Y 운동에 참여하여 Y틴, 대학생부 위원장 등 20여 년간 가정법률상담자로서 억울한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1973년부터 YWCA 총무 재직시에 송백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고 광주항쟁에서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연행 구금되어 6개월간 복역하였다. 1985년까지 12월 YWCA총무직을 수행하였다.

17. 임영희

1956년 무안에서 출생하여 수피아여고를 졸업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선교교육원에서 수학했다. EYC 부회장, YMCA나사렛연구회장, 현대문화연구소와 송백회 간사를 하면서 광주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극회'광대'단원을 하고 5·18광주항쟁을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극단 갈리리를 창단했다.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 여성부장,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위원, 사회책임포럼 운영위원, 민주공제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일촌공동체 이사, 주)오미디어넷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원광대 대학원에서 한국문화학을 전공했다.

18. 전삼순

1957년 광주 유덕동에서 태어났다.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호남신학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뒤 훗날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일신방직에 입사하여 다니던 중 5·18광주항쟁을 겪는다. 정철(정의행)과 결혼하고 오월어머니집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다.

19. 정유아

1953년 목포에서 태어났다.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독문과, 전남대 대학원 철학과를 수학했다. 대학 졸업 후 송백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광주YWCA 농촌부간사를 하면서 5·18광주항쟁에 참여하여 시민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집행부에 참여하여 수배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20. 정현애

1953년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서 태어났다.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1972년 광주교육대학에 입학했다. 1978년 결혼 후 송백회 창립멤버로 활동하였으며 2기 총무를 맡았다. 1980년 광주항쟁 시 녹두서점과 YWCA를 중심으로 한 항쟁 팀으로 시민궐기대회추진위원회 집행부에 참여하여 구속되었다. 목포중앙여중 역사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1989년 해직되었다가 1994년 복직 후 전교조 광주시지부 중등교사 지회장에 당선되었다. 4대, 6대 광주시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역임하였다.

21. 조아라

1912년 전남 나주군 반남면에서 출생하여 수피아여고를 졸업하고 수피아여중 교사, 광주YWCA 총무를 역임하였다. 광주성빈여사를 설립하여 이사장을 맡았고 광주YWCA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YWCA 회장 재직 시에 송백회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5·18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6개월간 복역하였다. 이외에도 수피아 백청단 은지환 사건주동자로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 거부로 고난을 겪었다. 포상으로는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2018년도에 독립유공 건국포상을 추서 받는 등 여러 사회활동으로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민주인사이다.

22. 황수진

1959년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태어나 벌교상고 졸업 후 1979년 광주로 올라와 양서협동조합 총무를 하던 오빠 황일봉과 함께 문병란 선생님 댁에 기거하면서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알게 되었다. 1980년부터 광주 YWCA 신협에 근무하였으며 이때 송백회 회원들과 교류하면서 학습모임 멤버로 활동하였다. 1983년 결혼 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89년 다시 광주로 돌아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